



## 오늘의 날씨와 생활

12월 3일 수요일 음 10월 14일 (6월)

## 기상 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70%	제주	70%
60%	성산	60%
60%	고산	70%
60%	서귀포	60%

## 주간예보 &lt;문의 ☎ 국번없이 131&gt;

내일 대체로 흐림 3/13°C  
모레 구름많음 6/14°C

## 대체로 흐림

제주는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4-7°C, 낮 최고기온은 8-10°C로 예상된다. 기온이 낮아져 날이 춥겠으며 곳에 따라 가끔 비가 오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해뜰 07:22	달뜰 15:39
해침 17:26	달침 05:05
물때	만조 09:19
	간조 21:03
자외선지수	낮음
산불위험지수	낮음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 월드뉴스

## '영유권 분쟁' 센카쿠 열도서 중·일 갈등 고조

## 양측 서로 선박 퇴거 조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중국명 다팠위아오) 열도를 둘러싸고 양국이 다시 격돌했다.

중국 당국은 일본 어선이 자국 영해를 침범해 퇴거 조치했다고 주장했고, 일본 언론은 중국 측 선박이 일본 영해를 침입했다가 밖으로 이동했다고 보도했다.

류더쥔 중국 해경국 대변인은 2일 "일본 어선이 불법으로 우리 다오위아오 영해에 진입했다"며 "중국 해경 함정이 법에 따라 필요한 통제 조치를 하고 경고·퇴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반면 일본 교도통신 등은 중국 해경국 소속 선박 2척이 이날 오전



센카쿠열도 인근 중국 해경국 선박. 연합뉴스

2시25분께 센카쿠열도 주변 '일본 영해'를 침입했다가 오전 5시10분께 빠져나갔다고 전했다.

중국 선박은 센카쿠 열도가 중국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하며 일본 어선에 접근하여 했고,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일본 영해 밖으로 나가라"고 요구하자 접속수역으로 이동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으나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이다. 연합뉴스

## 한국일보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 한 육 편집국장 고 대 로

④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e-mail: [hl@ihalla.com](mailto:hl@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 신청·배달 750-231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기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 써니트묘목분양

## ★ 만감류

- 써니트 - 한라봉 2년 - 카라 2년  
- 달콤, 미래향, 레드스타, 우리향, 맷나봉

## '써니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써니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종묘'에서 품종보호권자 현성익(서귀포시 상호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 농가에서도 써니트 접순을 불법 치취해서 자가묘목, 고접, 접순 나눔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사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저희 '한라종묘'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다이마시키, 레드한라봉, 흥한라봉, 붉은한라봉 등은 (품종명이 아님) 생판신고, 안된 품종이며, 후에 써니트로 밝혀지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유통한 묘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써니트란 이름으로 유통을 못합니다. (적발시 농가나 유통업체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유통 조치 현황 · 농가 : 42농가 · 업체 : 3개 업체

## 한라종묘

종사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 010-3696-2057

## 감귤묘목·포트묘목 분양

## ※ 감귤보급품종(1~3년생)

- 가장 많이 찾는 인기 품종
- 레드향 ● 천혜향
- 카라향 ● 황금향
- 한라봉 ● 궁전
- 유라조생 ● 오하라베니와세
- 금귤 ● 하귤(아마나스) 외



## ※ 국내육성품종(1~3년생)

-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품종
- 원터프린스 ● 하례조생
- 미나향 ● 탐나는봉
- 미니몬 ● 제라몬



## ※ 포트묘목 生존률이 높고 심는 시기 조절 가능

-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드향 / 황금향 / 천혜향
- 한라봉 / 하례조생 / 원터프린스 / 하귤
- 오하라베니 / 레몬 외

민성종묘는 종사업체로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및 농축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 민성종묘

농장 : 서귀포시 선반로 112-5(강정동 2327-1) 하예동 1831-2번지 외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사업 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

## 건강&amp;생활

강준혁  
한의학 박사

## 뼈를 빨리 붙게 하는 치료

에 없다고 한다. 하지만 한의학에선 신장이 뼈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고 신장을 보하는 약재들을 쓰고 골절이 된 부분이 아니라 신장에 관계되는 혈 자리에 침을 놓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를 한다.

신장은 단지 소변을 걸러내는 신체 기관만이 아니라, 뼈를 생성하고 성장과 발육을 조절하며, 골수를 생성해 뼈를 채우는 등 인체 내 여려 상호 연결된 기능을 포함하는 개념을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신장을 보하는 약재들은 뼈를 강화하고 골절 회복에도 도움을 준다고 전해진다. 갑스를 하고 병원에 입원하면, 갑스를 한 부분에는 애용으로써 몸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골절, 인대장애, 근육파열 등 수술 후나 갑스 상태에서도 반대편에 침을 놓아 회복을 돋는다. 질병의 근본 원인이 되는 장부 경락을 조절하는데 초점을 맞춰 보다 근본적으로 치료한다. 위에서 언급한 신장을 보해서 뼈가 빨리 붙게 하는 방법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한의학에선 오른쪽이 아프면 반대쪽을 자극해서 치료하는 방

법이 있다. 즉 다친 쪽이 아닌 건강 한 쪽에 침을 놓고 다친 쪽을 빨리 낫게 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오른쪽 다리가 골절이 돼 병원에 올 경우, 오른쪽에 갑스를 해놓고 있어도 원쪽에 침을 놓고 골절이 빨리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원위 침법이라고 해 아픈 부위의 반대편에 침을 놓음으로써 몸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골절, 인대장애, 근육파열 등 수술 후나 갑스 상태에서도 반대편에 침을 놓아 회복을 돋는다. 질병의 근본 원인이 되는 장부 경락을 조절하는데 초점을 맞춰 보다 근본적으로 치료한다. 위에서 언급한 신장을 보해서 뼈가 빨리 붙게 하는 방법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원위 침법은 경락상의 경혈을 이용해 기혈의 흐름을 원활히

게하고 내부 장기의 기능을 조화롭게 해 증상을 개선하는 원리다. 따라서 직접 아픈 부위를 자극하지 않고도 골절 부위의 통증 완화와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요약하면 한의학에서는 신장을 뼈 건강과 골재생의 핵심 기관으로 보고 신장 기능의 강화를 뼈를 빠르고 건강하게 붙게 하는 중요한 원리 중 하나로 삼고 있으며, 아픈 부위의 반대편에 침을 놓는 원위 침법으로 갑스를 한 환자도 적극적으로 회복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다.

주위에 골절 환자가 있으면 갑스만 하고 스스로 뼈가 불을 때까지 기다리지만 말고,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한의학적인 치료로 고생을 덜고 빨리 뼈가 붙을 수 있도록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 열린마당

## 보존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개발 모색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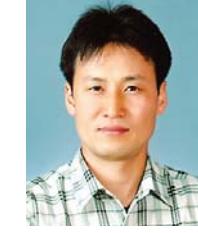
오태현  
제주상공회의소 의원

활력이 줄어들며 도민 체감경기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신호는 결코 가벼운 게 아니다. 도 재정과 일자리의 상당 부분이 관광에서 비롯되는 만큼, 관광동력 약화는 결국 도민생활기반 약화로 직결된다.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개발과 보존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모색해야 한다. 세계 여러 선진 관광도시는 민관이 함께 대규모 자금을 투입, '환경을 지키는 개발'로 높은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제주라고 다르지 않다. 관광객 유입과 인프라 확보, 새로운 경제주요창출을 위해 국책사업인 제2공항, 국내 대기업자본이 투입되는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등 대규모 프로젝트는 제주의 향후 100년을 준비하는 전략적 선택이다.

자연훼손을 줄이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지속 가능한 개발, 이를 통한 약화되는 미래 사업의 기반 마련이야말로 지금 제주가 준비해야 할 길이다.

## 소주 한두 잔의 가치

강병훈  
제주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교통경찰관의 입장에서 한 해가 마무리 되는 시기에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 한 해를 보내며, 또 한해를 맞이하며 모임을 갖고, 무심코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이성적 판단과 공간감각 저하, 시각기능과 균형감각의 문화, 인지반응시간 지연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야기한다.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이자 예비 살인행위다.

본인과 가족에게, 타인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지만 되풀이되곤 한다.

제주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제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7719

건이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을 다시 한 경우(재범률)는 2022년 1062건(42.5%), 2023년 1183건(44.1%), 2024년 1073건(42.2%)으로 4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너무나 귀에 싱거운 한마디, 그러나 되새겨야 하는 말이다. 술 약속이 있을 때에는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지 않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꼭 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호하게 술을 거절하며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한다.

전날 술을 많이 마셨다면 다음날 반드시 대중교통을